

북녘 사람들은 어떤 국어사전을 쓰나

규범적 성격 짙고 과학성 살린 특징...이질성 극복 위한 노력으로 모아지길

신현숙

상명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은 국민의 관심이 금강산 관광에 쏠리면서,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과 우리 민족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남북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통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기 시작하였다. 북한에 관한 기사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면서 언어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기도 한다. 이를 계기로 하여 우리는 북한의 언어를 정리한 사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언어를 살펴볼 수 있는 사전은 다양하다(도표 참조).

‘주체성’의 원칙 지닌 북한국어사전

그 가운데 대표적인 《현대조선말사전》은 “올림말을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서고 정치사상과 과학성이 옹계 보장되도록 각별히 힘을 기울였다”고 밝히고, 《현대조선말사전》

(제2판)에서는 “우리말과 글의 주체적인 발전은 언어학 분야에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이룩된 고귀한 열매이다”고 밝힌다. 또한, 《조선말대사전》에서는 “이 사전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주체의 언어이론과 사전편찬원칙에 기초하여 만든 우리식의 대사전이다. 사전편찬집단은 이 사전이 대사전으로서의 체모를 충분히 갖추며 근로자들의 언어생활과 학습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전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많은 힘을 쏟아 부었다. 또한 우리말의 주체적 발전에 더 잘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휘정리의 성과를 사전에 고착시키고 매 어휘들의 시대적 특성과 사용상 특성을 정확히 밝히는 데도 많은 관심을 돌리여왔다”고 밝히고 있다. 정순기·리기원은 <사전편찬리론연구>(1984)에서 사전편찬의 기본 원칙을 ▲주체성의 원칙 ▲당성·로동계급성·인민성의 원칙 ▲현대성의 원칙 ▲과학성과 규범성의 원칙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원칙은 북한에서 펴낸 국어사전의 특징이기도 할 것이다.

북한의 국어사전에 대해서는 국내 학자들에 의해 많이 연구됐는데, 그 결과는 대체로 첫째, 북한의 국어사전은 사회정치사상성이 두드러진다. 둘째, 북한의 사회 현실과 언어 현실에 맞는 풀이법을 사용하고 있다. 셋째, 소리의 고저와 장단의 표기, 어휘 사용 빈도 수 등은 유익한 정보이다. 넷째, 고유어를 살려 쓰려는 노력은 사전에 민족적 특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사전의 면모를 갖추고 발간된 《조선말대사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북한 국어사전의 특징을 더욱 뚜렷이 밝힐 수 있다.

이 사전의 ‘일러두기’를 보면 “고유어와 한자어, 외래어, 사회정치용어와 각 부분의 학술용어 및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주요사적들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변, 사건, 유물, 유적과 관련한 용어들, 포괄적인 고장이름들, 그리고 낡은 투의 한자말과 력사어, 고어, 리두, 방언 등”을 올렸으며, 우리말 문법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앞붙이·뒷붙이·토”를 독립적인 올림말로 올렸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올림말의 원천을 다



1992년 발간된 《조선말대사전》.

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고전로작들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고전적 문헌들에 나오는 사회정치용어를 비롯한 각종 어휘부류들. 둘째, 각 부문 과학기술도서와 잡지 및 각급 학교 교과서들에서 쓰인 과학기술 용어를 비롯한 여러 어휘 부류들과 그것을 고친 다듬은 말들. 셋째, 혁명적 문예작품을 비롯한 문학예술작품들, 일반잡지들과 각종 신문들에서 쓰인 풍부한 고유어를 비롯한 여러 부류의 어휘들. 넷째, 해방전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나온 국한문혼용체의 각종 자료들과 도서, 신문, 잡지들 및 고전고설 등 옛날 민족고전에 쓰인 한자말과 옛스러운 투의 우리말들. 다섯째, 해방 후 나온 조선말 뜻풀이사전류와 여러 과학기술사전 및 부문별사전들의 올림말들.”

따라서, 《조선말대사전》의 올림말은 ‘문화어’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동음이의어의 배열은 “같은 문법적 부류 안에서는 사회정치적 의의가 크고 우리 인민의 언어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쓰이는 올림말을 먼저 놓되 고유어, 한자말, 외래어의 차례로”라는 원칙에 따라 배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북한 국어사전의 특징이기도 한 사회정치사상이 사전의 올림말을 선정하고 배열하는데 많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말대사전》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음소 차원의 발음 표시 외에 운율적 요소인 소리의 고저와 장단을 모두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고저는 올림말 뒤에 숫자 1, 2, 3으로 표시하는데, 1은 낮은 소리, 2는 보통 소리, 3은 높은 소리를 뜻한다. 또 장음은 높낮이를 나타내는 숫자 옆에 두 점을 찍어 표시한다. 예를 들면, ‘발그레하다’는 올림말은 ‘233:21’로 적고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음운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음소적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 운율적 요소를 표기하기 위하여 과학성을 기하고자 노력한 점 등은 남한 사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정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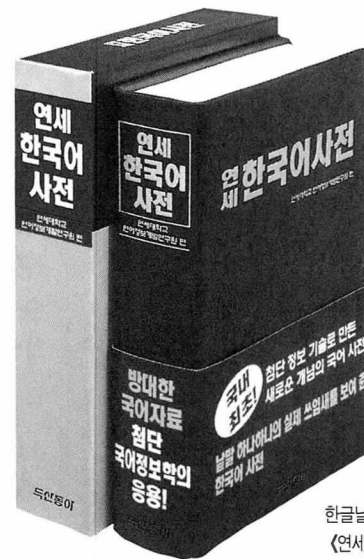
규범적 성격 짙어

올림말이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건설·경제·고고·금속·기계·기상 등 그 분야를 표시하고, 어휘 정리에 의해 다듬어 쓰게 되어 있는 말은 ‘(다듬은 말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마라다스마 [명] (다듬은 말로) 침대 깔개’로 나타낸다. 마땅히 고유어로 다듬어 써야 할 말은 ‘⇒’를 써서 ‘마도석 [명] ⇒ 슷돌’과 같이 표시한다. 옛날에 쓰이던 한자나 한문투의 말은 일반언어생활에서 쓰지 말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를 표시하여

	제 목	연도
북한에서 펴낸 사전	표준말 맞춤법 사전	1947
	조선어소사전	1956
	조선어철자법사전	1956
	조선말사전	1962
	새옥편	1963
	현대조선말사전	1969
	조선문화어사전	1973
	우리말사전(학생용)	1978
	방언사전	1980
	현대조선말사전(제2판)	198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로작 용어 사전	1982
	조선속담	1984
	현재조선말사전(상·하)	1985
	조선동의어사전	1990
조선말대사전	1992	
조선말사전(상·중·하) 동의어, 반의어, 동음어 사전	1993	
리조실록난해어사전	1993	
중세조선말사전	1993	
중국에서 펴낸 사전	조선말소사전	1980
	조선말동의어사전	1987
	조선말성구사전	1990
	조선말사전	1992
일본에서 펴낸 사전	조선말의태어사전	1971

통일의 길 여는 우리말 사전들

《연세 한국어사전》, 《표준국어대사전》 등 출간



한글날을 맞아 출간된 《연세 한국어사전》은 86년부터 준비, 10여년의 작업 끝에 선보였다.

북한의 국어사전은

주체성과 인민성, 현대성·

과학성·규범성의 원칙에 따라

편찬되고 있다.

사회·정치·사상성이 사전의

올림말을 선정·배열하는 데

크게 반영되는가 하면,

다듬어 쓸 말과 쓰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한 규범성도

강조되고 있다.

‘마고체 [명] ㉠ 표고나물’과 같이 표기하고 있다. ‘다듬은 말’을 표시하고, 마땅히 다듬어 쓸 것과 다시는 쓰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여 밝힌 것을 보면 북한의 국어사전이 남한의 국어사전에 비해서 규범적 성격이 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휘의 사용 정도를 보여 주기 위하여 뜻풀이를 한 뒤에 () 안에 빈도수를 제시하였다. 이 빈도수는 모든 분야에서 사용된 104만 단어 가운데 쓰인 회수를 적은 것으로, 최대빈도 46,612회 (하다)로부터 2회까지 밝혔다. 이와 같은 특징은 북한의 국어사전이 얼마나 과학성과 현대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규범성·과학성·현대성은 <사전 편찬리론연구>에서 밝힌 사전편찬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하는 특징이다. 그러나, 이 사전에서 추구하고자 한 규범성·과학성·현대성에 대한 평가는 좀더 깊이 있게 살펴본 후에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언어통일 작업의 노력 있어야

《조선말대사전》의 의미정보 제시는 일곱 가지 원칙에 의하는데, 몇가지만 살펴보면 이렇다.

“올림말의 뜻풀이는 간결하고 알기 쉽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올림말의 성격에 따라 일부는 어느 정도 상세하게 풀이하도록 하였다.”

“뜻풀이에서는 문화어의 뜻체계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대사전의 특성을 고려하여 오늘날 쓰이지 않는 낡은 뜻도 일정한 전제 밑에 다 밝혀주도록 하였다.”

“사회정치용어와 일부 과학기술용어들은 그 본질적 내용 또는 개념을 정확히 풀이한 뒤에 보충풀이를 덧붙여주었다.”

“고사와 유래가 있는 한자성어와 속어 및 성구, 속담은 그 고사, 유래와 의미적 근거를 밝혀 주면서 그 뜻을 풀이하였다.”

이 원칙은 《조선말대사전》이 의미정보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 것이다. 예를 들면, 의미 제시방식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의어를 제시하는 방식을 쓰지 않고 직접 풀이방식을 쓰고 있으며, 의미의 연계를 위해 뜻풀이를 하고 동의어를 제시한다. 다의어의 의미는 한 올림말 아래에서 ①, ②, ③ 번호로 제시하고, “아직 옹근뜻으로 갈라지지 않은 뜻”은 같은 번호 안에서 따로 제시하였다. 또한 뜻 파생의 갈래가 다르거나 문법적으로 갈래를 달리 할 경우에는 I, II, III 등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한편, 부호 ‘⊖’와 함께 동의어를, 부호 ‘↔’와 함께 반의어를 제시하고 있어 어휘 의미 관계를 표시하고자 했다. 이런 구체적인 의미정보는 의미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대표적인 국어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말대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살펴봤는데, 이는 사실상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 모아질 수 있다. 실제로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국민 언어 생활의 표준을 제공하고, 한민족의 언어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문화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강인선, 1995:4)는 취지하에 북한 말, 방언은 물론, 해외동포 언어까지 폭넓게 반영한 사전을 기획하고 1992년에 착수하여 현재 완성단계에 있다. 이러한 언어통일 작업이야말로 통일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뜻깊은 일일 것이다. ❖

통일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우리말 복원이다. 언어의 복원은 분단 상대인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다. 최근 우리말 복원을 위한 사전편찬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글 탄생 552돌을 기념하여 선보인 《연세 한국어사전》(두산동아)은 통일을 대비한 사전으로 꼽을 수 있다. 사전 편찬을 위해 연세대는 지난 86년 ‘한국어사전편찬회’를 구성했다. ‘편찬회’는 정지작업을 위해 ‘한국어사전 편찬방안 연구’, ‘한국어 어휘사용 빈도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등과 같은 연구를 하고, ‘연세 말뭉치 3,000만 어절’을 준비했다. 이후 5년 동안 언어정보개발연구원(원장 이상섭)을 주축으로 사전 발간에 박차를 가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그동안 290명 이상의 교수들이 참여하여 만든 이 ‘사전’에는 우리말 4300만 어절(300쪽짜리 단행본 600권 분량)이 수록돼 있다. 18만쪽 이상의 방대한 자료에서 뽑은 15만개 이상의 예문을 싣고, 모든 표제어의 풀이 갈래마다 반드시 1~3개의 예문을 실었다. 표제어마다 참고란을 두고 삽화와 용언(동사/형용사)의 쓰임새를 실어 언어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속어와 관용표현의 용례를 풍부하게 실어 우리말의 살아 있는 실증을 보여준다. 편찬자 중심이 아닌 현재 사용되는 언어 중심으로 편집해 통일을 대비한 언어 정보의 맥을 짚고 있다.

우리말 복원작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국립국어연구원(원장 이익섭). 국립국어연구원은 지난 92년부터 총 92억원의 예산을 들여 준비한 통합 한글사전 《표준국어대사전》(두산동아)을 98년 하반기에 펴낼 예정이다. 현재 공정이 약 70% 정도 진행되고 있어 예정대로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제항만 50만 항목이 수록될 사전은 8천쪽에 이르는 초대형 작품이다. 표준어 규정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며, 기존

사전에서 규범 해석에 차이를 보이거나 규정이 미흡한 부분을 총체적으로 정리했다. 용언이 요구하는 필수적인 성분을 밝히는 문형정보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어 문장의 올바른 사용에 도움을 준다. 또한 형태뿐만 아니라 발음 정보도 풍부하게 실었다. 예를 들어 “뵈다” 형의 제시내용은 뵈아, 뵈으니, 뵈고(뵈:고), 뵈는(뵈:-), 뵈지(뵈:찌)” 식으로 기술했다.

특히 북한어 6만 항목을 수용하여 통일을 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북한 규범이 달라 생긴 단순한 표기의 차이도 수용했다. 예로 들면 북한어 ‘로인(老人)’을 수록한 다음 “노인”의 북한어라고 풀이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출간된 《통일시대의 한글 맞춤법》(연규동 지음, 박이정)은 통일을 대비한 맞춤법 사전이다. 맞춤법에 대한 해설을 중심으로 기존 맞춤법의 규정과 비교, 맞춤법 현행안의 문제 등을 서술하면서 남북의 ‘통일 맞춤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을 준비하는 사전을 편찬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냉엄한 분단체제하에서 언어만이라도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통일시대의 한글 맞춤법》 저자는 “남북이 하나가 됐을 때 다시 논의해야 하지만 어문정책의 통일은 굳이 이념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힌다. <오완진>